

2013. 5. 12. 일요일	
학원을 가야해서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알람소리도 못듣고 계속 자서 10시에 일어났다.	
11시까지 가야하는데도 느긋하게 준비했다. 카톡도 확인하고 트위터도 다 보고나서 일어나 준비하기 시작했다. 엄마는 배드민턴 대회를 나가는 날이라서 아침일찍 나갔고, 동생은 평소엔 늦게 일어나면서 교회는 날에는 번쩍 눈 떠서 나갔다	
아빠와 나 둘 뿐이다. 요새는 냉전상태다.	
혼자 밥먹고 준비다해갈 때 품, 학원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다 "나영아 어디니?" "집인데요~"	
"뭐하는거야~ 빨리와!!" "네~" 바로 나갔다.	
수업을 했다. 두시간 넘게하고 나서 난 단어시험도	외우고 가야해서 진이 빠졌다. 결국 오우다가
1강 남기고 집에가고 싶다고 간절히 부탁해서 집으로 갔다. 도희는 교회갔다가 와있었다	
어색한 아빠랑 KFC가기도 했는데 아빠가 준비하는 동안 나는 곧 있을 스승의 날을 위해 종이에 사랑해표를 각각쓰고 신명나게 셀카를 찍었다. 그러다 아빠랑 둘이 덕성여대정 KFC에	
갔다 햄버거랑 치킨을 시켜 먹는데 별 대화없고 어색했다. 제발 빨리 집가고 싶었다.	
근데 아빠가 슬리퍼를 사러 가겠다고 소개비시장으로 갔다. 신발과는 굳이 짝들이 널렸었다	
The North Face 가 The North Pole 이런식으로 되어있었다. 그냥 다른 데서 정품이라고 알았다.	
다시 차에 타서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말은 그냥	집에가자 하면서도 돌아다녔다.
집에타서는 HOT한 프로그램인 아빠, 어디가를 보았고, 이어서 런닝맨도 보았다	
재밌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방정리를 했다.	노세범파우더 퍼프랑, 컨실러 브러쉬도 개끗이 닦았다
숙여서 정성스레 닦느라 허리가 너무 아팠다.	
아까 KFC 간 사이 친구랑 놀러나간 도희가 새가 되도록 안되어 어디냐고 전화를 했다.	
노래방을 갈 꺼란다. 가라하고 풀자마자 엄마가 왔는데 대회에서 은메달을 땀다고 말했다	
와아~!!!! 같이 기뻐해주었다~ 근데 아빠는 왜 자길 혼자 방치해두고 나갔냐며	
우려했다. 이해심이 전혀 없다.	
도희(동생)는 노래방에서 놀려고 엄마한테 구구정정 문자를 보냈다. 귀여웠다. 혼자지	
않으려고 애쓴다. 난 방에서 친구들한테 카톡도 하고 노래들으며 여유를 즐겼다.	
이모랑 이모복가 우리집에서 엄마아빠랑 술 한 잔 했다. 다 먹고 가서 난 샤워하고	
자기 전에 도희랑 네일아트하다가 피곤해 잤다.	
공부는 언제할까 싶다 ㅎㅎ 난 고3인데	
이 나라는 입시지옥이다. 휴 ㅠ ㅠ	